

##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3.01~25.03.31)

### □ 그린 인프라 창출 촉진 사업 공모 선정 결과에 대해 [3/3]

- 민간 기업이 가지는 새로운 그린 인프라 기술의 실증을 실시하는 그린 인프라 창출 촉진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 4개 사업을 선정하였음
- 그린 인프라 창출 촉진 사업은 국토교통성은 2024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서 시작한 사업임. 본 사업은 그린 인프라의 사회 구현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완화, 방재·감재, 포스트 코로나의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 공간 형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에 의한 첨단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산관학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회적인 보급의 목표로 함
- 응모 대상은 ① 방재·감재에 관한 빗물 침투 기술, ② 정량적인 효과 모니터링 기술, ③ 상기 이외의 녹색 인프라에 관한 기술의 3가지이며, ③은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안이면 선정 대상으로 함
- 본 사업의 실시자 자격은 △ 학교교육법에 기초한 대학 또는 부속시험연구기관이나 기타 공적 연구개발기관, △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 일본에 등기되어 있는 민간 기업 등에 해당함
- 상기 실시자 자격 요건과 함께 현지에서 실증을 진행할 수 있는 필드 제공 등 지자체 등의 토지소유자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함
- 이번에 선정된 4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지역재(대나무, 벚짚 등)를 활용한 빗물저류기능에 관한 다면평가(응모자 : 공익재단법인 지방경제종합연구소), △ 녹지·삼림 지하수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녹지·삼림관리 영향평가 방법 표준화(응모자 : 카지마건설), △ 고해상도 위성영상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도리 모니터링 및 평가 기술(응모자 : NTT데이터), △ 자연기능 강화와 보완적 구조를 통한 자기완결형 녹색 인프라 유닛 개발(응모자 : 교토산업대학, 도쿄레오주식회사 공동

### □ TEC-FORCE가 국토교통대신 표창 수상 [3/3]

- 2024년 노토반도 지진 재해, 2024년 7월 25일 폭우 재해, 2024년 9월 20일 폭우 재해에서 활약한 긴급재해 대책 파견대(TEC-FORCE) 29개 단체에 대해 국토교통대신 표창이 수상되었음
- 긴급재해대책 파견대(TEC-FORCE) 표창은 2015년부터 제정된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확산 방지나 피해지역의 복구 지원 등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과 사회기반 안정에 큰 공헌이 있는 단체를 표창하는 것임
- 국토교통성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8년 4월에 TEC-FORCE를 창설하였으며, 국토교통성 본성 재해대책본부장 등의 지휘명령 하에 전국의 지방정비국 등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음
-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이나 수도 직하 지진을 비롯한 대규모 자연 재해 발생이 염려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4월에는 대원수를 약 17,000명 규모로 증가시켰음(창설 시점에는 약 2,500명). 드론 등 ICT 기술 활용과 장비품 등의 증강 등 체제·기능을 확충하고 있음

□ **맨션(※)의 관리·재생 원활화 등을 위한 개정 법안이 각의 결정 [3/4]**

- 맨션의 관리 및 재생 원활화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후화 맨션 등의 관리 및 재생의 원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오늘 각의 결정되었음
  - 맨션은 그 총수가 700만 호를 넘어, 전체 1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에서 중요한 거주 형태의 하나가 되어 있는 한편, 건물과 구분소유자 양쪽 모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전체의 약 20% (약 137만 호)가 준공 40년 이상이며, 앞으로 10년 경과 후 2배, 20년 경과 후 3.4배로 증가할 예정임. 세대주의 50% 이상은 70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음
  - 맨션의 신축으로부터 재생까지 이어지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조망하는 관리 및 재생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이번 개정은 크게 ① 맨션 관리의 원활화, ② 맨션 재생의 원활화, ③ 지자체의 대처 충실의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음
  - 맨션 관리의 원활화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 신축 시부터 적절한 관리나 수선이 이루어지도록, 분양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관리조합에 계승하는 체계를 도입, △ 맨션 관리업자가 관리조합의 관리자(대표자)를 겸하여 공사 등 발주자가 되는 경우, 이익상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에게 자전거래 등에 대해 사전 설명할 것을 의무화, △ 수선 등의 결의는 회의 참석자의 다수결에 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현행 전체 구분소유자), △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유부분·공동부분 등을 재판소가 선임하는 관리인에게 관리시키는 제도를 창설함
  - 맨션 재생 원활화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 건물·부지의 일괄 매각, 동 전체 리노베이션, 건물의 해체 등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다수결(80% 이상)로 진행할 수 있게 함. △ 인접지의 소유권 등에 대해서 재건축 등이 진행된 후 맨션의 구분소유권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변경, △ 내진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높이 제한 특례를 창설함
  - 지자체 대처 충실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 외벽 표면 박리 등 위험한 상태에 있는 맨션에 대해 보고 징수, 지도·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구분소유자의 의향 파악, 합의 형성 지원 등의 대처를 실시하는 민간단체 등록 제도를 창설함
- ※ 맨션 : 일본에서 맨션은 비교적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독립하여 주거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각 실을 가진 것을 말함. 유사한 표현으로 아파트가 있으며, 아파트는 소규모이며, 목조나 경량철골 조인 것, 임대물건을 가리킴. 맨션은 비교적 대규모로 RC조, SRC조이며, 구분소유된 것을 분양 맨션, 임대되는 것은 임대 맨션이라고 부름

□ **새로운 관민 연계 수법 구축을 위해 어필 타임을 개최 [3/10]**

- 국토교통성은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과제(Needs)를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새로운 관민 연계 수법(Seeds)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하는 「민간 제안형 관민 연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25년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36건의 과제(Needs)가 접수되었으며, 유형으로 구분하면 ① 전략적인 인프라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체제 확보(홋카이도 무로란 시 등 20건), ② 스몰 컨세션의 추진(아이치현 토요타시 등 10건), ③ 녹색사회의 실현(도쿄도 스기나미구 등 4건), ④기타(유휴지 활용 등)가 이바라키현 고카마치 등 2건이 있었음
- 이러한 지자체가 해결하고 싶은 과제(Needs)들에 대해 민간으로부터 해결 방안을 모집하였으며, 60개의 민간사업자로부터 70건의 제안(Seeds)이 모집되었음. 제안은 ① 전략적인 인프라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체제 확보에 대해 43건, ② 스몰 컨세션의 추진에 대해 11건, ③ 녹색사회의 실현에 대해 16건, ④기타에 대한 제안은 0건이었음
-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민간사업자가 지자체들에게 자신의 제안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어필할 수 있는 어필 타임을 진행함. 어필 타임 이후에는 과제(Needs)를 제출한 지자체와 제안(Seeds)을 제출한 민간사업자가 1대 1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조사보고(2025년 1월분) [3/12]**

- 2025년 1월 수주총액은 8조 1,614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26.1% 증가하여 10개월 연속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1,051억 엔(전년동월대비 27.5% 증가)으로 4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564억 엔(전년동월대비 23.8% 증가)으로 10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5조 1,051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1,587억 엔(전년동월대비 20.3% 감소, 2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3조 8,976억 엔(전년동월대비 31.7%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5조 1,051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1,587억 엔(전년동월대비 20.3% 증가, 7개월 연속 증가)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3조 3,688억 엔(전년동월대비 29.5%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1조 1,414억 엔(전년동월대비 26.3%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 **지정확인검사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3/12]**

- 2025년 3월 12일부로 국토교통대신으로부터 국토교통대신 지정확인검사기관에 대해 건축기준법 제77조의30 제1항에 기초한 감독 명령을 내림
- 주식회사 국제확인검사센터(국토교통대신 지정 제15호)는 나가사키 현 내 1건의 건축물 계획 확인 심사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확인검사원의 과실로 인해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 규정(시가지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음)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정확인검사기관으로서 확인 필증을 교부하였음
- 국토교통성은 확인검사 업무에서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해당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후 유사 불충분 확인심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 매뉴얼 개선 및 심사 체제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포함한 업무개선 계획서를 2025년 4월 2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함. 또한 해당 계획 제출 일로부터 1년간 해당 계획 실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기관 내 설치된 감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분기 별로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함

※ 지정확인검사기관 : 법 규정에 기초하여 공사 인허가 신청 시 확인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기관

□ **저탄소형 콘크리트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대 중 [3/14]**

- 한번 건설되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인프라 분야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 관점에서 공용·관리 단계에서 인프라 서비스에서의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건설 시공 단계에서 저CO2에 이바지하는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탈탄소화 대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교통성은 발주하는 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저탄소형 콘크리트 활용을 추진하고 있음
- 저탄소형 콘크리트란 포틀랜드 시멘트의 치환율이 55% 이상인 것 또는 동등 이상의 CO2 배출 삭감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시멘트의 55%를 대체한 콘크리트는 제조 시 CO2 배출량이 약 50% 감소됨
- 국토교통성에서는 「국토교통성 환경행동계획」(2021년 12월 27일 수립), 「탈탄소 성장형 경제 구조 이행추진전략」(2023년 7월 28일 각의 결정) 등에 기초하여 CO2를 삭감하는 효과가 있는 콘크리트(저탄소형 콘크리트)에 대해 현장 도입이 가능한 기술부터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저탄소형 콘크리트는 국토교통성이 발주한 전국 51개 직할 현장(약 11,000㎡)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결과 CO2 배출절감에 필요한 비용과 시장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종래 품보다 증가한 경우가 55%, 동등 또는 감소한 경우가 45%였음

□ 제7회 일·미 인프라 포럼 개최 [3/18]

- 3월 23일 인프라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 양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일·미 인프라 포럼」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됨. 일본과 미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일본 국토교통성 및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최신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 교환을 실시함
- 이와카와 종합정책국 국제정책과장의 개최 선언 후, 나카야마 종합정책국 정보정책과장이 일본 내 인프라 분야의 사이버 보안 정책을 소개하였음. 또한 항만국 및 항공국에서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최신 사이버 공격 사안과 개별 분야의 정책을 소개함. 미국 측에서는 국토안보부가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을 소개하였음
- 일·미 인프라 포럼은 2018년 1월 제1회가 개최된 이후 1년~1년 반에 1회 정도 개최되고 있음

□ 제7회 일본·방글라데시 조인트 PPP플랫폼 회의 개최 [3/18]

- 국토교통성은 3월 11일 방글라데시 PPP청과 「제7회 일·방글라데시 조인트 PPP 플랫폼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함. 제7회 회의에서는 양국에서 선정된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13건의 신규 프로젝트 제안이 있었음
- 일본 측에서는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심의관, 대신관방심의관, 재방글라데시 일본대사가 참석하였으며, (독)국제협력기구, (독)도시재생기구, 일방글라데시PPP협의회회원기업 등이 참가하였음
- 방글라데시 측에서는 수석고문부 M.시라즈 차관, 도로교통교량성 M.에사눌 차관, 민간항공관광성 나스린 차관, 철도성 M.파히물 차관, PPP청 M.라피글 장관 외 40명 정도가 참석함
- 회의 종료 후에 일본의 질 높은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들은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과 도교역 주변 등의 현장을 시찰함

□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관민팀을 파견 [3/19]

- 국토교통성에서는 향후 우크라이나에서 국토교통 분야 인프라 부흥 사업에 일본 기업 참가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일본·우크라이나 국토교통 인프라 부흥에 관한 관민협의회」(jupitEr)를 설립함
- 이번에 관민협의회의 대처로서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국토교통성 직원 및 회원기업으로 구성된 관민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여, 인프라 부흥의 주무관청인 지방국토발전성을 비롯하여, 국제개발금융기관, 현지 업계 단체를 방문하고, 의견교환 및 기업 간의 네트워킹 활동을 실시함
- 키이우에서는 시민 생활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모든 방문처에서 일본기업이 복구 계획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하고 있고, 향후 구체적인 프로젝트 형성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건설 종합 통계(2025년 1월분) [3/19]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 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5년 1월 기성총계는 5조 2,226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하였음
- 1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9,798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3,404억 엔(전년동월대비 3.6% 증가)이며, 토목은 6,394억 엔(전년동월대비 13.8% 증가)임
- 1월 공공 기성총계는 2조 2,427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0%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4,965억 엔(전년동월대비 5.8%증가)이며, 토목은 1조 7,462억 엔(전년동월대비 3.5%증가)임